

한국지명의 문화적 특징에 대한 예비 토론 A Preliminary Discourse on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Place Names

윤홍기(오클랜드 대학교 환경학부)

Hong-key Yoon

School of Environment

The University of Auckland

New Zealand

머릿말

부모가 갖태어난 자기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 주는 것은 그 아이에게 기본적인 정체성을 부여하는 행위이고,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이라고 선언하는 일종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이 어느 문화권에서나 집권 세력(집단 또는 개인)이 한 장소(지역)에 지명을 지어 붙이고 그 이름으로 불리게 하는 것은 그 장소에 일차적인 정체성을 부여하는 행위이자, 일종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행위이다. 서양의 한 학자는 어떤 지역에 지명을 부여하는 행위는 그 지역을 점령하여 식민지화 하는 남성적 정복권력(phallic nature of colonization)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러한 남성적 정복 권력의 특징(phallic characteristic)이 잘 나타나는 것으로 그 지역의 기존 지명을 갈아 치우고 새로운 지명을 부여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고 했다.¹ 한 민족 국가의 영토 안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명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곳 주민의 성씨(family names)로 어떤 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나를 밝혀 내는 것은 그 민족 국가의 문화적 특징중 중요한 면을 살펴 보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지명의 특징은 한국 문화의 특징을 일차적으로 규정짓는 중요한 인자이다.

지명은 문화권에 따라 달라서 어떤 문화권에서는 오래도록 사용되어 그 수명이 길지만 어떤 문화권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면 유럽 문화권에서는 중요한 지명의 수명이 대체로 긴 편이지만, 중국문화권에서는 비교적 짧은 편이다. 중국문화에서 중요한 지명의 수명이 짧은 이유는 대체로 중국 왕조의 수명이 짧아서 200 - 300년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때 마다 중요한 도시나 중요한 행정단위의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흔했기 때문이다.² 한국문화에서도 중요한 도시와 지역 명칭이 중국에서와 같이 왕조가 바뀌면 바뀌는 경향이

¹ 지명의 남성적 권력의 질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토론은 RDK Herman, "The Aloha State: Place names and the anti-conquest of Hawaii,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 89 (1), 1999, p.78-79 를 참조할 것.

² J. E. Spencer, "Chinese Place Names and the Appreciation of Geographic Realities", *Geographical Review*, vol 31 No.1 (1941), p. 81.

있으나 한국 왕조의 수명은 중국의 그것보다 훨씬 길었고 그래서 한국의 중요한 행정구역 이름이나 도시 이름들의 수명도 그러한 중국 지명의 수명보다 훨씬 긴 편이다.

아직까지 한국지명의 문화적 특징을 조감하여 토론한 논문이 서양 학술지에 소개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지명의 문화적 특징은 이미 1941년에 Joseph Spencer 에 의하여 서양에 소개된 바 있다. 그는 Geographical Review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중국의 각 성(省)의 이름과 그 수도 이름을 중심으로 중국지명의 특징을 잘 꼬집어 서양 식자들에게 소개하고 설명하였다. Spencer가 그의 논문에서 지적해 낸 중국지명의 특징 중에서 중요한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³

- (1) 중요한 성 단위 행정구역, 도시, 강, 산맥 등은 이름을 여럿 씌 가지고 있다는 점. 보통 두자로 구성된 공식 명칭 외에 외자로 된 지명 과 한개 이상의 (잘 알려진) 고전 지명 등을 가지고 있다.
- (2) 중요한 행정구역으로서의 성(省)과 도시의 이름은 자주 바뀌는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지명변경은 왕조가 바뀔 때 또는 한 왕조 안에서도 일어난다.
- (3) 새로운 행정단위를 설정할 때나 두 도시를 합쳐 새로운 도시를 형성할 때 자주 기존 지명에서 한 글자씩 따서 합쳐 새로운 지명을 만든다.
- (4) 외국지명을 중국의 지명으로 쓰는 예가 없다. 그래서 외국의 문화가 중국지명에 영향을 준 면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미국이나 캐나다의 많은 지명이 영국이나 다른 유럽의 지명을 그대로 옮겨다 쓰거나 서양 고전 문화 (로마-그리스)의 유산을 반영하는 지명이 많은 것에 대조된다.
- (5) 중국소수민족의 지명은 그들 고유지명의 음가를 그냥 한자로 표기하거나 중국식으로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붙인다.
- (6) 중국은 지역적으로 또는 민족적(소수 민족이 많음)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는 지명을 붙이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 예를 들면 북부에서는 강이름에 황하와 같이 하(河)를 붙이는데 남부에서는 양자강 같이 강(江)을 붙인다.
- (7) 각 성의 이름이 지리적 자연환경의 특징을 나타내는 지명이 많다. 즉 황하강 남쪽을 의미 하는 허난성(하남성)이나 태산의 동쪽을 의미 하는 산둥성 (산동성), 동정호 이남을 의미하는 호남 성 (호남성)등이다.

한국지명의 유래나 한국지명을 역사 또는 지리적으로 연구한 책들이 상당수 있으나 이들은 대체로 사전식으로 편찬된 것이며 주제별로 분류하여 지명의 유래를 설명한 것이 대부분이다.⁴ 그러나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에서 펴낸

³ Joseph Spencer, "Chinese Place Names and the Appreciation of Geographic Realities", pp.79-94.

⁴ 그 대표적 예로, 권상노, 한국지명연혁고: 지명변천사전 (서울: 동국문화사, 1961); 건설부 국립지리원, 지명유래집 (서울: 건설부 국토지리원, 1987); 이영택, 한국의 지명: 한국지명의 지리 역사적 고찰 (서울: 태평양, 1986) 등이 있다.

“지명의 지리학”은 지명을 언어학적인 면에서 다른 국어학자들의 연구논문을 제외하고 지명의 역사, 문화, 지리적인 기능과 의미를 연구한 논문을 집대성해서 낸 책이다. 21명의 지명관계 학자가 쓴 17편의 논문은 한국 지명연구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단행본이다. 이 책의 각 논문들도 한국 지명의 일반적인 특징을 조감하여 알아보려는 연구 논문이기 보다는 일부 지명의 특정한 면을 깊이 있게 연구한 논문들이다. 최근 Korea Journal에 발표된 한국지명에 대한 영어 논문이 여러편 있으나, 이들도 대체로 Spencer의 중국 지명연구에 대비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한국 지명의 문화적 특징을 연구한 논문들이 아니라 일부 특정 지명의 특정한 면을 다루었다.⁵

이와 대조적으로 이영택은 그의 책, “한국의 지명” 서론에서 간단하게나마 한국지명의 특징은 그이대 부분이 우리 조상들의 생활 주변의 땅모양, 위치 등이나 思考나 정치, 군사등에서 유래된 것이 많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부연하여 말하길 “불교에 관계되는 塔, 寺, 金剛 등의 지명이나, 유교의 忠, 孝, 仁, 禮, 智, 信 등의 五倫에 관한 덕목의 한자가 지명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도 우리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였다.⁶ 이상과 같은 이영택의 토론이 지금까지로서는 한국지명의 일반적인 특징을 가장 잘 압축하여 설명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한국 지명의 특징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구체적으로 토의한 논문을 아직까지 국내 학술잡지에서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일반적인 한국지명의 특징을 영어로 서양 학술잡지에 소개한 글도 아직 알려진 것이 없다. 그래서 필자는 이 논문에서 Spencer가 제시한 중국지명의 특징에 비교할 수 있는 한국 지명의 일반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고 좀 더 체계적으로 토론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이 논문의 한계는 필자가 아직 한국에 존재하는 지명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 제안한 다섯 가지의 한국 지명의 특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량적인 증거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이 논문은 예비 고찰 단계의 것으로서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이 연구해온 것과 지명사전등을 참고하여 볼 때 나타나는 지명의 특징을 찾아내고, 그것에 필자 자신의 경험에 기초를 둔

⁵ 한국 유네스코 지부에서 발행하는 Korea Journal vol.52, No. 1(Spring 2012)은 한국의 지명이 특집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 5 편의 한국지명관계 논문이 게재되어 있다: Kim Jeong-tae, “On toponymic variations engenerated”, 11-46; Park Byeong-Cherl, “The development and regional distribution of Korean toponymic back morphemes: with a focus on gogae-related toponyms”, 47-73; Jung Chi-young, “Korean perceptions of the environment as viewed through village names”, 74-104; Kim Sun-Bae,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toponyms and the coexistence of contested toponymys in Korea”, 105-139; Je-Hun Ryu, “Postcolonial urbanization and the changes of vernacular toponyms around Bupyeong-gu, Incheon: a critical perspective”, 140-170. 이상의 영문 논문들도 한국지명의 일반적인 특징을 조감하여 토론한 논문들이 아니다. 이들은 한국지명의 언어학적 특징의 한 면을 토론하거나, 한국 지명의 한 부류인 마을 지명이 가지고 있는 환경지각을 다룬 것이거나, 일정 지역 내에 있는 유교지명의 변천을 다룬 것이거나, 한 지역의 도시화와 토속지명의 변화를 다룬 것이다. 이들은 한국 내에서 일부 지역의 지명이나 일부 지명 유형이 갖고 있는 특징 중 한 면을 다룬 연구논문들이다.

⁶ 이영택, 한국의 지명, 28.

생각을 더하여 다음 다섯 가지가 한국지명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제안하고자 한다:

1. 현재 한국 도시나 행정구역의 공식 지명은 한자로 된 지명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가 중국의 지명을 본딴 느낌이 강한 지명이다. 한국 토박이 지명은 실제로 (특히 시골 마을 이름의 경우) 주민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많지만 공식 지명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대체로 비공식 지명으로 전락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사용되고 있다.
2. 전통적으로 한국지명에는 유명한 사람의 이름 (제왕이나 영웅들의 이름)을 지명에 붙여서 기념하는 경우가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조상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재래 한국 전통에서 유래된 것이다.
3. 전통적으로 한국의 지명, 특히 토박이 지명은 지형지물이나 주위 경관의 특징을 나타내는 이름들이 많다.
4. 한국 지명에는 한국의 종교신앙을 표현하는 이름들이 흔한데, 특히 두드러진 것은 유교, 불교, 풍수 그리고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은 지명이 흔하다.
5. 전통적으로 한국문화에서는 시가지에 길이름을 붙이지 않았다가 오직 최근래에 와서 길이름들이 붙이게 되었다.

이제 이 논문에서는 위의 다섯가지 항목을 차례로 살펴 보고 토론하여 한국지명의 문화적 특징을 알아 보고자 한다.⁷

1. 현재 한국 도시나 행정구역의 공식 지명은 한자화 된 지명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가 중국의 지명을 그대로 본딴 느낌이 강한 한자 지명이다. 한국 토박이 말 지명은 대체로 공식지명에서 밀려나 비공식 토속지명으로 전락하였다.

내무부 발행,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1992년 3월 1일 현재 자료에 의하면, 서울과 임실 (토박이 이름의 향찰식 한자 표기)을 제외 한 모든 공식 행정 구역 이름, 다시 말하면 국가 이름, 각 도와 시 이름 및 군, 면, 리,동의 이름이 한자 지명이다. 서울시와 임실군과 같이 순수 우리말 토박이 이름이 향찰식 (이두식)으로

⁷이 논문에서 제시한 한국 지명의 문화적 특징은 모든 지명을 총망라하여 계량화하여 분석한 결과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고, 오래도록 한국에 살면서 보고 느끼며 경험한 것과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질적으로 한국지명을 음미하여 유추해 낸 것이다. 각 특징의 토론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필자의 기존 연구나 다른 학자의 기존연구에 나타나는 제한된 지역의 지명을 표본 조사하여 통계적인 빈도를 이용하려고 한 것도 있다. 지명 총 색인에 의한 양적인 분석 결과를 통하여 이논문에서 제안한 한국지명의 문화적 특징을 증명 또는 개선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연구가 될 것이다.

표기되어 공식 지명으로 살아 남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⁸ 어떤 이는 충청남도의 공주(公州)는 토박이 이름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으나, 이 논문에서는 한자지명으로 분류한다. 왜냐하면 公州라는 지명은 원래 곰나루라는 토박이 지명이 한자로 번역되어 웅진(熊津)이라고 일차적으로 한자화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 지명의 둘째 음절이 당나라 시대의 한자 지명 식으로 바뀌어 웅주(熊州)라고 한 것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뀐 뒤에도 그 지역 사람들은 아마도 웅주라고 부르기 보다는 계속해서 곰주라고 부르다가 公州로 정착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한자로 표기된 公州라는 지명은 토박이 지명 ‘곰나루’를 음역하여 표현한 향찰식 지명도 아니고 토박이 지명을 번역한 것도 아니게 한자화 된 지명이기 때문에 한자지명으로 분류한다.

한자(漢字)로 표현할 수 없는 수 많은 토박이 지명은 지금도 시골 마을 이름이나 지방 곳곳의 땅이름으로 계속해서 민중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지만 공식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경상북도 지명 유래 총람” 1984년 판에 의거 하여 집계된 선산군 고아면의 경우 18개 리동이 있는데 이들 공식행정구역에 속하는 시골마을이나 그 마을의 세부지역의 이름은 모두 91개나 밝혀져 있다. 이 91개의 지명을 분석해 보면 내가 이미 “땅의 마음”에 발표한 바와 같이 77개의 이름이 토박이말 이름으로 분류되었다.⁹ 이 77개의 토박이 말로 분류된 지명 중에는 “새마”, “아름마”, “윗골”, “터지실” 같이 순수한 토박이 말 지명이 대부분이지만, 지명의 한 두 음절이 한자에서 온것이 좀 보이는데 이러한 지명에서 한음절 만이라도 토박이 말이 들었으면 토박이 지명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면 “바깥연흥”인 경우 “연흥(蓮興)”이 한자말이지만 “바깥”이 토박이 말임으로 이를 토박이 지명으로 취급하였다. 이렇게 하면 오직 14개의 지명만이 순수한 한자지명인 것으로 판명된다. 이렇게 토박이 지명이 실제로 민중들에게서 사용되고 있지만 공식지명 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민중사이에서 사용되는 지명 (unofficial and vernacular place names) 이 되어 버림받았고 점차 사멸되어가고 있다. 본디 토박이 말로 만들어진 지명을 자기들이 일상 생활에서 아직도 사용하면서도, 속된 것으로 여겨 물리치고, 외래어에서 유래된 이름 (한자 지명)에 공식지위를 부여하는 경우를 나는 독립된 국가를 가진 다른 민족문화에서 아직 찾아 보지를 못했다.

한자 지명이 공식지위를 누리고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토박이 지명이 비공식지위로 밀려 난 데에는 두 번의 중요한 변혁이 한국 역사상 있었다. 그 첫번째 큰 변혁은 신라 경덕왕 16년 (757년)에 전국의 중요한 토박이 지방 주현의 행정지역 명칭을 중국 당나라 지명을 모델로 하여 주로 두 음절의 한자식 지명으로 고친 것이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9권 경덕왕 16년 12월조에 의하면

⁸ 서울은 수도(首都)라는 뜻의 순수한 토박이 한국어로서 한글로만 표기된다. 임실은 任實이라고 한자로도 자주 표기 되지만 이것은 우리 토박이 말의 옛날부터 내려오는 향찰표기로서 큰마을, 훌륭한 마을이란 뜻이라고 한다.

⁹ 윤홍기, 땅의 마음 (서울: 사이언스 북스, 2011) 346-347 쪽: Hong-key Yoon: “Imposing Chinese Names on Korean Places---” pp. 161-162.

사벌주(沙伐州)를 고치어 상주(尙州)라 하였다는 기사와 다른 몇 지명을 한자식으로 고친 기록이 있다.¹⁰ 그리고 삼국사기 지리지(지리1-4)에는 많은 옛 신라, 고구려 백제의 토박이 지명과 그것의 한자화된 지명이 실려있다.¹¹ 이러한 토박이 지명의 한자화는 중국이 강요하여 된 것이 아니고 신라가 자발적으로 중국의 문화(당시로는 당나라 문화)를 좋아해서 토박이 지명 대신에 한자 지명을 지어서 공식지명으로 시행한 것이다. 한국 지명이 한자화 된 두 번째 큰 변혁은 조선 총독부가 1914년에 행정구역을 개편했을 때 토박이 마을 이름은 사용하지 않고, 시골 마을 두 세개를 합쳐서 한개의 리동을 만들때 오직 한자 지명만을 사용했다. 이때 리동의 이름이 한자지명이 아니면 한자지명을 새로 만들어 붙였다. 이들이 한자 지명을 만들때 자주 소속된 마을의 이름의 첫글자를 따서 이름을 지은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바로 중국에서 새로운 지명을 지을 때 널리 써 온 방법이었다. 조선조 시대에도 이러한 중국에서 새로운 지명을 짓는 방식을 적용하여 지명을 만든 예로는 현재에도 쓰이는 한국 8도의 도명들, 경주, 상주의 첫 음절을 합쳐 경상도로, 전주, 라주의 첫음절을 합쳐 전라도라고 한 것 등 여러 도명을 들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한자 지명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 두 종류는 또한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중국지명을 그대로 옮겨와 지명으로 쓰거나 약간 수정하여 지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우선, 중국 지명을 한반도에 그대로 따와서 한반도의 지명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예를 들어보자. 영남, 호남 지방이라는 지명은 당나라 때 중국의 남부 지역인 남령산맥 이남의 지역에 영남도라는 지방행구역이 있었고, 동정호 이남에 호남이라 하여 지방 관할도를 설치하였었는데 이 이름들이 한국의 남부지역을 둘로 나누어 부르는 지명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라는 지명은 당나라 때 수도인 장안 주위 지역을 일컫던 이름으로 당나라 수도 주위 지역 관할도였는데, 한국에서도 수도인 서울 (조선조 때 한성) 주위 지역을 경기도로 명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미산은 원래 중국 사천성 서부에 있는 유명한 산인데 한반도 여러군데에 있는 산 이름으로 적용되었다. 충남 보령군 미산면, 전북 순창군 순창읍, 함남 문천군 문천면 등에 이 중국의 산 이름을 본 따서 붙인 아미산이 존재한다.¹² 이외에도 전주, 광주(廣州), 청주 등도 중국에 동일한 지명이 존재한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지명을 약간 수정하여 한반도(즉 중국의 동쪽에 있는 나라)에 있는 중국의 지명이라는 것을 의미하도록 적용한 경우이다. 그 예로 낙동강은 동쪽에 있는 낙수(낙양에 있는 강이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동화동(東華洞)은 동쪽에 있는 중화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¹⁰ 김부식, 삼국사기 (상), 이병도 역주, 182쪽.

¹¹ 김부식, 삼국사기 (하), 179-237쪽 (삼국사기 권 제 34-37).

¹² 건설부 국토지리원, 지명유래집, 102쪽.

2) 토박이 땅이름을 한자로 번역하여 표시한 것.

신라 경덕왕 16년 (757)에 토박이 땅이름을 중국 당나라식으로 바꾸는 한자 지명화가 대대적으로 행하여졌다. 예를 들어 ‘돌고개’라는 토박이 지명이 있었다면 이는 석현(石峴)으로, ‘밤골’이라는 지명이 있었다면 이는 울곡(栗谷)이라고 번역하여 한자식으로 개명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의 수원은 고구려때 지명이 매홀(買忽: 물 마을)이었는데 경덕왕 때 이를 한자로 번역하여 수성(水城)이라고 개명하였다.¹³ 이렇게 온전히 번역하는 경우가 아니면 한 음절은 한자의 뜻을 빌리고, 한 음절은 한자의 소리를 빌려 두 음절화하든지 아니면 두 음절 모두 한자의 소리를 빌려 임실(任實)과 같이 토박이 지명을 2음절의 한자식 지명으로 틀에 맞추어 향찰로 표기하는 것이다. 토박이 지명의 한자화는 신라시대 이후 한문을 많이 배운 지배층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온 것으로 보이며 일제 식민통치 초기 1914년에 행한 행정구역 개편시 지명이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한자화되었다. 꼭 이러한 역사적 대 변환시기에 한자화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경우 지금 공식 지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자 지명의 취락들은 도시나 시골 마을을 막론하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토박이 이름을 또한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다. 대도시를 예로 들면, 대구는 달구벌, 경주는 서라벌, 대전은 한밭 등이 그 보기이다.

2. 전통적으로 한국지명에는 유명한 사람의 이름 (제왕이나 영웅들의 이름)을 지명에 붙여서 기념하는 경우는 극히 찾아 보기 힘들다. 조상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전통에서 유래된 것이다.

새로 탄생한 세종시 와 서울의 충무로, 을지로, 세종로와 같은 지명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의 이름을 존경하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현대에 들어와서 나타난 현상이고, 이러한 지명 붙이기 버릇은 서양문화에서 들어온 것이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는 조상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 꼭 그 이름을 직접 거론해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자기 할아버지의 성함이 홍길동인데 그 이름을 남에게 꼭 소개해야 할 때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이 길동이라고 하지 않고, 길(吉)자(字) 동(童)자(字)하는 어른이라고 소개하거나, 글자의 뜻을 우리 말로 새겨 길할길자 아이동자 하는 어른입니다라고 소개하는 식이다. 일반 백성이 임금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죄악시되었고, 조선시대 임금의 이름은 중국황제에게 보내는 국서에서나 밝힐 정도로 타부시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직계조상이나, 손윗사람들, 특히 훌륭한 성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극도로 피하고 간접적으로 친족 관계 명칭이나 벼슬(직장의 직위) 또는 아호(雅號)나 시호(諡號)등을 사용하여 이름을 부르는 것을 대신하였다. 이러한 한국 재래 전통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의 이름을 지명으로 사용하여 그 사람을 기리는(칭송하는) 방법은 적어도 한국전통문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¹³ 김부식, 삼국사기(하), 이병도 역주, (서울: 을유문화사, 1987), 193-194쪽.

한국 전통 유교사회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을때 부모나 가까운 친척의 이름과 동일한 것을 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이름에 덜어간 두 자의 한자(漢字) 중에서 한 자도 (한 음절도) 쓰지 않도록 주의 했다. 가까운 조상의 이름을 자손들의 이름으로 다시 쓴다는 것은 조상에 대한 불경스러운 행동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이와 반대인 경향이 있다. 자기 부모 이름이나 가까운 친척의 이름을 그대로 아이 이름(first name)으로 정하여 쓰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본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조상이나 친척을 칭송하는 것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새로 난 아이에게 특정 조상(부모 포함)의 이름을 부여 하는 것은 그 아이가 그 조상의 능력과 업적을 계승하고 그를 모범으로 하여 살기를 바란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한다. 잘 알려진 예로, 아버지 George Bush와 아들 George Bush 미국 대통령들이 있고, 자동차 왕 이라고도 일컬어 지는 Henry Ford도 여러대를 두고 Henry가 부르는 이름 (first name)으로 쓰이는 경우이다. 이러한 한국의 전통과 서양의 전통을 고려해 볼 때 지금의 세종시를 비롯하여 김대중도서관, 노무현재단, 안철수재단 등은 그렇게 명명한 사람들은 의식하고 있지 않을 지도 모르지만, 서양식 이름 붙이기의 산물로 보이며, 이북에서 쓰는 김일성 광장, 김정숙 군, 김형직 군 등의 지명도 전통 한국적인 주체 사상의 산물이 아니고, 서양식 지명 붙이기 습성의 산물로 보인다.

현재 서울의 중요한 길이름에는 한국 역사상 중요한 인물들의 이름이 많이 사용되었다. 위에서 말한 세종로, 충무로 등이 그 예이다. 그래도 이는 본명 보다는 시호를 지명으로 써서 훌륭한 선조를 기리는 방법이니 한국의 전통사상이 어느 정도 반영된 지명이라 할 수 있겠다. 한국 역사상 위대한 인물 들인 세종대왕이나 충무공 같은 분이 한국인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들의 이름을, 비록 시호라 할 지라도, 길이름, 도시 이름 등의 지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서양에서 온 버릇이다. 이것은 서양 역사가 잘 말해 준다.

서양에서는 옛날 부터 영웅의 이름을 지명에 붙이는 것이 그 영웅을 칭송하고 기념하는 방편 중 하나였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히랍과, 이집트, 페르시아 등 방대한 지역을 정복한 뒤 수 많은 도시를 알렉산드리아로 명명하였으며, 그 중 아직도 남아 있는 큰 도시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시이다. 로마시대 (326년)에 콘스탄틴 황제 (Constantine)가 비잔티움 (Byzantium)을 수도로 정하고 난 뒤에는 그 도시 (현재의 이스탄불)를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 (Constantinople)이라고 개명했다. 고대 로마 시가지에서도 시내 중심 광장이나 많은 공공장소를 로마의 황제들이나 영웅들의 이름을 따서 붙이고 영웅들의 이름을 자주 지명 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지금도 미국 여러 곳에 지명으로 나오는 워싱턴, 링컨, 잭슨 등은 물론이고 샌프란시스코, 산호제 등과 같은 미국 도시 이름도 특정 사람의 이름을 딴 것이며 이러한 지명들은 그 사람들을 칭송하고 기념하는 의미가 들어있다. 뉴질랜드의 큰 도시도 대체로 특정사람의 이름을 딴 것인데 이를테면, 오클랜드, 웰링턴, 해밀턴, 넬슨 등이다. 이제 이와 같은 서양문화에서의 지명 붙이기 전통이 한국에 전파되어 잘 정착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한국사회의 일반 대중은 길이름이나 공공장소의 이름에 특정 인물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그들을 기념하고 칭송하는 자기들 고유 관습으로 까지

이해하는듯 하며, 이러한 버릇이 외국문화에서 온 것이라는 것은 전연 감지하지 않는 것 같다.

3. 전통적으로 한국의 지명은 지형지물, 경관의 특징을 나타내는 이름들이 많다.

한국의 산과 강 그리고 구릉지를 지칭하는 지명에는 그 지형의 특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표현하는 지명이 많다. 예를 들면 삼봉산, 오봉산 등은 산 봉우리가 세 개 또는 다섯 개 있는 산이란 의미의 지명이며, 삼지내나 어우내 등은 냇물의 지류가 어떻게 흘러 어우러지는지를 의미한다. 이영택은 이러한 한국의 지명적 특성에 대해 말 하길, “산모양이 시루(甌), 삿갓(笠), 검(劍), 주발(鉢), 부리(角), 원(圓), 촛대(燭臺), 안장(鞍)과 같은 산모양을 나타내는 산에는 증산(甌山), 립산(笠山) 발산(鉢山), 촛대산(燭臺山), 안산(鞍山)과 같은 산이름이 붙은 산이 많고---.” 라고 하였다.¹⁴ 그의 이러한 지명에 대한 관찰은 주민들에게 산의 모양이 어떻게 비쳐졌고 그러한 주민의 환경지각이 어떻게 지명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를 잘 요약하였다. 내가 어릴 때 자라며 익히 알고 있는 경북 선산군 일대의 지명도 이렇게 주위 경관의 특징을 반영하는 지명들이 많다. 다음은 그 예의 일부이다.

- 진다리 - 논에 물이 항상 질척하게 있는 곰논이 있는 곳이라서 붙여진 이름.
- 붉은디 - 그곳의 흙이 붉어서 붙여진 이름.
- 가마골 - 옛 날 전란때 가마(큰 솥)를 걸었던 곳이라고도 하고, 흙이 검은 곳이라 그렇게 불렀다고도 함. 그러나 신종원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지명의 가마, 가매는 신당의 토속 신을 의미하는 고유어로 사료된다고 하였다.¹⁵ 그러면 가마골은 신당의 토속신을 모시던 곳으로 볼 수 있다.
- 솔피 - 소나무가 많은 산, 작은 절이 있다.
- 베틀산(틀피) - 해평면과 산동면 사이에 있는 산으로 베틀은 베틀모양을 닮았다고 함
- 소산골 - 산이 솥은 곳에 있는 마을이란 뜻
- 내미리 - 이 산골 마을은 산에 겹겹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산줄기를 따라가는 길목에 있으며, 골짜기 깊은 곳에 자리잡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위의 지명은 필자가 알고 있는 경북 선산군 고아면과 해평면일대의 토속지명의 일부이다.)

이 외에 강이름이나 개울물 이름에서도 우리는 지명이 지형 지물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삼지내(三川) - 전라남도 담양군 평창면에 있는 작은 강 세개가 곡류를 이루면서 합류하는 곳
- 어(아)우내 - 충청남도 천원(안)군 목천면 교천리에 있는 내(川)가 서로 만나 어울리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부쳐진 지명 등을 볼 수 있다.

¹⁴ 이영택, 한국의 지명, 143쪽.

¹⁵ 신종원, 삼국유사 새로 읽기(1): 기이편 (서울: 일지사, 2004) 37-40쪽.

(위의 두 지명은 이영택, 한국의 지명, 219에서 발췌한 것).

전통 지명이 각 지역의 지리적 (지형적)인 특징을 표현하고 있다는 면은 위에서와 같이 한국의 토박이 지명에 널리 퍼져 있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이러한 것은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논문의 첨 부분에서 말한 바와 같이 Spencer의 중국 지명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거니와 푸쿠이 (Pukui et al) 공저의 근래 하와이 토박이 지명 연구에서도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 밝혀져 있다. 그들의 하와이 토박이 지명 분류에 의하면 지리적 특징 (geographical features)을 표시하는 지명이 83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무생물 자연 (inanimate nature)을 의미하는 지명이 265로 그다음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크기를 나타내는 말(words of size)로 된 지명이 203, 색깔(colors)을 나타내는 말로 된 지명이 69 등등이다.¹⁶ 이들의 연구에서 볼 때 하와이 토박이 지명에도 지리적 환경을 나타내는 지명이 다른 지명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세계 여러 문화권의 토박이 지명이 가진 공통된 특징으로 사료되며 한국의 토박이 지명도 다른 문화의 토착지명과 같이 그 지역의 지리적 지형지물을 포함한 환경을 나타내는 지명이 가장 보편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 토박이 지명의 특성 연구는 한국 토박이 지명 전체를 분류하여 음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이는 많은 작업이 요구되는 과제임으로 체계적인 표본조사를 통한 연구로서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한국 지명에는 풍수, 유교, 불교, 무속신앙 등 종교적 신앙을 표시하는 지명이 많다

특정 지명에는 그 지명을 지은 사람(들)의 사상과 그들 나름대로의 그 지역 환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투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국의 지명에는 한국인들에게 전통적으로 중요한 종교신앙적인 사유와 민속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한국에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풍수, 유교, 불교 및 무속신앙등을 표현하는 지명들이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

1) 풍수 지명

풍수지리설이라고도 일컬어지는 풍수설은 한국인이 자연을 인식하고 이용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미신적인 면이 강한 신앙이고 술수이다. 풍수설이 한국문화에 미친 영향은 전국에 널려있는 지명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 이미 여러 학자들이 지적해 왔다.¹⁷ 풍수설이 지명에 미친 영향을 전국 각 군단위 별로 조사해 보면 각 군에서 적어도 몇 군데 이상이 풍수와 연관된 지명을 가지고

¹⁶ M. K. Pukui, S. H. Elbert and E. Mo'okini, Place names of Hawaii, 2nd editio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74[1966]) p.258. This information is re-quoted from RDK Herman, "The Aloha State: Place names and the anti-conquest of Hawaii",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9(1), 1999, p.84.

¹⁷ 이영택, 한국의 지명; 권선정, "풍수 지명과 장소 의미"; 김순배, "지명의 에대오로지적 기호화: 유교, 불교, 풍수 지명을 중심으로"; 천인호, "지명형성의 풍수담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풍수 지명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a) 풍수형국에서 유래된 지명

전국에는 의물화, 의인화 된 산 이름, 지역(마을)이름들이 많다. 예를 들면 옥녀봉, 문필봉, 와우산 등과 봉황동, 봉무동, 배울 또는 뱃골(행주형) 등이다. 이들은 대체로 풍수설에 기초를 두고 있는 지명들로서 특히 풍수형국에서 유래된 산모양이나 지역 경관을 상징하는 지명들이다. 풍수형국은 지역 경치를 의인화 또는 의물화 하여 땅을 한개의 작은 가이아와 같은 유기체적인 시스템으로 파악한다. 예를 들면 전국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옥녀봉이라면 산을 아름다운 여자로 파악한 데서 나온 것으로서 옥녀 탄금형(여자가 비파를 타는 형국), 옥녀산발형(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있는 형) 등의 풍수형국등에서 유래된 지명이다.¹⁸ 문필봉이라면 이는 산꼭대기가 뾰족한 것으로서 오행을 통하여 본 산형으로서는 불피 즉 화산(火山)에 해당한다. 필봉 또는 문필봉은 뾰족한 산꼭대기가 붓글씨 쓰는 붓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인 이름으로 그 지역에서는 선비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여 선호하는 산이름인 경우가 많다. 와우산은 소가 누어있는 산의 모양이라는 것으로서 먹을 것이 넉넉한 재물을 기원하는 풍수적 기원이 담긴 지명이다. 얼마 전 산사태로 뉴스의 집중을 받은 서울의 우면산(牛眠山)은 소가 자고있는 산이란 뜻을 우리말 어순에 따라 한자로 표시한 지명인데 이 역시 소와 관계된 풍수형국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풍수형국이 한국지명에 미친 영향은 권선정의 논문에 형국과 관련된 풍수지명의 분류가 충남 금산군의 경우를 들어서 잘 지적되어 있고¹⁹, 천인호는 봉황형국을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에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134개의 봉황형 산과 마을을 조사한 결과 마을과 산이름은 대체로 봉황과 관계되는 것이고 봉황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여러가지 방책이지명화 된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²⁰ 이와 같이 기존 연구와 내가 공부한 것을 종합해 보면 풍수설이 한국지명에 미친 영향은 아주 큰데 모든 풍수 이론과 풍수신앙 중에서 풍수형국의 유형과 이를 믿은 지역민의 신앙적인 대응이 풍수지명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b) 풍수에서는 지관이 명당을 찾아 명당의 주위 산세를 둘러보고 평가할 때 명당 바로 뒤에 있는 것을 주산이라하고, 왼편으로 둘러싸는 산줄기를 청룡이라고 하고, 오른 쪽에서 둘러싸는 것을 백호라고 하며, 명당 앞 평지를 건너 좀 떨어져 있는 산을 안산 이라고 한다. 이러한 풍수 지형 명칭은 어느 명당 지형을 볼 때나 고려하는 풍수 요소들로서 사신사라고 한다. 그래서 서울의 사신사를 예로 들면 주산은 북악산이고, 청룡은 낙산이고, 백호는 인왕산이고 안산은 남산이다. 이러한 풍수 명당의 사신사의 각 요소는 말하자면 일반 명사인데, 이러한 풍수

¹⁸ 건설부 국립지리원, 지명유래집 (201- 203쪽)에는 전국에서 모은 5개의 옥녀봉 (충남 논산군, 경북 달성군, 충북 청원군, 충북, 중원군, 경기도 김포군)에 관계되는 5자루의 지명유래 전설을 소개하고 있다.

¹⁹ 권선정, “풍수지명과 장소의 의미”, 21-23쪽.

²⁰ 천인호, “지명형성의 풍수담론”, 235쪽.

용어로 쓰이는 일반 명사를 때로는 그냥 어떤 마을의 뒷산을 주산이라고 하여 지명 즉 고유명사로 쓰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다. 이 만큼 풍수설은 한국인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산 - 경북 선산군 해평면 해평동의 뒷산;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 있는 산(831m).
청룡산 - 평안북도, 구성시에는 청룡산 (920m), 청룡저수지 등이 있음.

백호산 - 전라남도 여수시 호정면 백야리 (白也島)에 있는 산이름.

(옥정산이라고도 함)

수구 - 풍수에서는 명당 앞에 물줄기가 합쳐서 바져나가는 곳을 말하는 데 전국에 수구, 수구막이, 수구동은 여러군데 나타난다. 그 한 예가 충남 연기군 전동면 마곡리에 있다.

그리고, 풍수에서 길지를 명당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일반 명사를 고유명사인 지명으로 사용하여 자기들이 사는 동네를 명당동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지명의 경우는 자기들의 고장이 풍수적으로 명당이란 이미지를 내세우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명당동, 명당리 등의 풍수 지명이 전국에 상당히 널려 있다는데 청송군 안덕면, 평산군 문무면 구손리, 신흥군 하원천면 흥경리, 등 세곳이 명당동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²¹

2) 유교 지명

유교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절대자에 대한 종교신앙이기보다는 사회윤리와 인간이 갖추어야 할 도덕성에 대한 성현의 가르침이다. 유교가 전통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은, 사회윤리의 기본이 되는 삼강오륜의 윤리관을 통하여 이룩된 면이 강한데 이러한 윤리관을 표현하고 있는 지명이 흔하다. 김순배는 그의 최근 박사학위 논문에서 충남 구 공주목 진관 구역의 지명 분석을 하고 그곳의 유교 지명은 가) 三綱 및 五常 관련 지명, 나) 儒敎的 觀念 관련지명, 다) 儒敎的 身分 및 施設 관련지명, 라) 中國의 古事, 經典, 遺跡을 인용한 지명으로 분류하여 그 지역의 예를 들어 토론하였다.²² 이 연구는 공주지역 일부에 국한된 지명의 경우를 분석한 것이지만 한국의 유교 지명 연구에 있어 지금까지 가장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고증 토의한 연구이다. 한반도의 다른 지역 연구에도 김순배가 ‘구 공주목 진관구역 연구’에서 제시한 유교지명의 특징이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경우 비슷한 결과를 보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글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기보다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한국의 지명 중에서 유교적인 배경을 띤 지명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그 특징을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유교와 연관된 한국지명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두드러진다고 생각한다:

- a) 효사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표시하는 지명이 가장 널리 퍼져 있다.

²¹이영택, 한국의 지명, 89쪽.

²² 金淳培, 韓國 地名의 文化政治的 變遷에 關한 研究: 舊 公州牧 鎭管 區域을 中心으로, 한국고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110-132쪽.

유교 사회윤리는 자주 삼강오륜(三綱五倫)으로 요약될 수 있고 이 중에서 삼강의 세 원칙이며 오륜의 첫번째에서 세번째에 이르는 중요한 윤리 원칙인 나라(임금)에 대한 충성(君臣有義), 부모에 대한 효성(父子有親), 남편에 대한 정성(夫婦有別)의 윤리 원칙이 가장 중요했다. 이러한 윤리는 지명에도 잘 반영되어 있어 충신, 효자, 열녀에 관계되는 지명이 많다. 유교 사회윤리의 근간인 삼강과 오륜은 나라(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을 제일로 삼고 있다. 그 다음이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정성을 다해 열녀가 되는 것이 그 다음이다. 그러나 한국의 지명을 보면 효(孝)사상이 다른 어느 유교윤리 원칙보다도 더 중요하여 나라에 대한 충(忠)에 관계되는 지명보다 훨씬 더 많다.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실제적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가 나라에 대한 충성보다 더 기본이 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또한 한국 재래사회에서는 충신은 효자집안에서 구한다는 말이 있듯이 효를 가장 중요한 사회윤리로 다룬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전국에는 효자동(리)라는 지명이 상당수 존재하며 그 중 잘 알려진 것이 서울 종로구의 효자동과 광주시 북구의 효자동(충장공 김덕령장군의 출생지)일 것이다. 건설부 국립지리원에서 펴낸 “지명유래집 (1987) 234쪽에는 전국에 분포하는 효자동 7군데의 지명 유래를 소개하고 있다:

- 1) 서울 종로구 효자동
- 2)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효자동
- 3)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 4) 전라북도 전주시 효자동
- 5) 충청남도 아산군 도고면 효자리
- 6) 경상남도 진양군 수곡면 효자리
- 7) 경상북도 포항시 효자동

여기에 실린 일곱군데는 모두 특정한 효자 - 서울 효자동의 경우 조원의 아들 - 희신, 희철 형제 - 의 들어난 효행으로 부터 유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효자 지명의 특징은 특정 효자 개인의 이름을 지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효행을 내세워 효자동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점이 서양의 지명을 짓는 방법과 현저히 다르다. 서양 같으면 아마도 그냥 효자동이라고 했기 보다는 효행을 한 특정인의 이름을 지명으로 했을 확률이 크다. 확실히 한국 지명에서는 개인의 이름을 지명으로 사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영택은 그의 책에 효(孝)자가 들어가는 지명을 열네개 열거하였는데 그 예를 보면, 효자리, 효문리, 효촌리, 효곡리, 효제동, 효평리 등이다.²³ 이러한 ‘효’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지명은 전국적으로 수없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김순배는 그의 “구 공주목 진관구역 연구”에서 38개의 지명이 유교의 삼강(三綱)

²³ 이영택, 한국의 지명 108쪽.

및 오상(五常)²⁴에 관련된 것으로서 58개 처소의 지명으로 나타나있다는 것을 발표하였다.²⁵ 이들 지명을 내가 유교 윤리원칙 별로 분류하고 그 빈도를 셈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1) 충(忠)에 관계되는 것이 충곡리, 팔충리 등 2개 지명이고
- 2) 효(孝)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효계동, 효가동 등 11개 지명이고,
- 3) 부모에 대한 효도와 연관되는 산소(祖上의 山所, 무덤, 부모 사후 효행에 관련되는 것)에 관계되는 산소(동)리, 시묘리(골), 산직리(산직이 마을이란 뜻) 등 조상 산소에 관계되는 지명이 16개나 된다.
- 4) 오륜리라고 하여 오륜사상을 그대로 표현한 지명이 1개 열거되어 있다
- 5) 인(仁)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3개,
- 6) 의(義)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3개,
- 7) 예(禮)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2개로 되어 있다.

위의 분석에 의하면 삼강(三綱) 윤리중에서 열녀에 관한 지명은 보이지 않고, 충(忠)에 관련되는 것도 2개 밖에 보이지 않는 반면, 효(孝)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11개나 되는 것을 보면 한국인이 얼마나 효를 중요시 하였는지가 잘 나타나 있다고 보인다. 이 11개의 ‘효’가 한 음절로 들어가는 지명 외에 16개의 죽은 조상에 대한 효도와 관계되는 산소, 산직이 등에 관련된 16개의 지명도 효도(孝道)에 관계되는 지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조상 제사모시기와 산소 돌보는 것이 한국인에게 있어는 효행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한국 유교사회 윤리의 근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1개의 효(孝)자가 들어가는 지명과 16개의 산소에 관계되는 지명을 합치면 27개의 지명이나 유교윤리의 중심 축인 효행에 관련된 것이다. 이는 구 공주목 진관구역의 삼강 및 오상관련 지명 38개 중에서 71%가 넘을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더우기 지명이 중복되게 여러곳에 나타나는 것을 고려할때 ‘산소리’라는 지명은 8군데에서나 나타났고, ‘산직리(말)’이란 지명은 14개 군데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복된 면을 고려 하면 총 58개 장소에서 47개 장소의 지명이 효에 관계되는 이름으로 판명되며 이는 전체 장소의 81%가 넘는 지명이 효사상과 관계되는 것이다. 이는 단적으로 효사상이 얼마나 전통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였는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효사상은 한국 전통 사회를 유지하고 이끄는 중심사상이었고 이러한 면은 효에 관계되는 지명의 분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영택의 한국의 지명에는 충(忠)자가 들어가는 지명도 또한 참 널리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²⁶ 그 예로 충의동(충주시), 장충동(서울), 충신동(서울), 충열동(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북 용천군 양광면²⁷, 모충동(慕忠洞, 충북 청주시) 등을 들 수 있다.

²⁴ 오상은 유교에서 읽키는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의 다섯가지 윤리 도덕적인 덕목을 말한다.

²⁵ 金淳培, 韓國地名의 文化政治的 變遷에 關한 研究, 110-111쪽.

²⁶ 이영택, 한국의 지명, 107-108쪽.

²⁷ 건설부 국토지리원, 지명유래집, 320쪽.

b) 도덕 수양의 덕목으로서의 오상을 반영하는 지명이 많다
 유교에서 중요시하는 다섯가지 사람이 수양하여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오상(五常)이 있다.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의 다섯가지가 바로 그것이다. 이 다섯가지 덕목은 인을 주장한 공자로 부터 시작하여 의, 예, 지를 더한 맹자를 통하여 심화되었으며, 한나라때 동중서가 이 네가지 덕목에 신을 더하여 다섯가지로 오행의 원리에 맞추어 완성하였다. 이 도덕 원칙을 전통 한국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수양 덕목으로 참 중요시하여 오상의 한 글자가 지명의 한 음절로 들어간 것이 많다. 서울에 있는 인사동, 인왕산, 승인동, 예지동, 통의동, 돈의동, 창신동 등 과 예산군, 의성군, 용인시 등의 시군단위 이름도 보이고, 면단위 또는 동리 단위 지명에 오상의 덕목이 표현된 지명은 전국에 널리 산재해 있다.

3) 불교지명

불교가 한국에 전래된 뒤 한국인의 정신체계에 큰 영향을 주었고 가장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민중에게 종교적 신앙체계로 굳어져 왔다. 유교가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윤리적인 면에서 민중에게 준 영향이 종교신앙적인 측면 보다 월등이 컸다고 한다면, 불교가 한국 민중에게 미친 영향은 유교와 반대로 종교신앙적인 면의 영향이 사회윤리적인 면 보다 월등히 컸다고 볼 수 있다. 불교를 국교로 받들었던 고려시대는 물론이고 억불 정책으로 박해를 받던 조선조에서도 불교신앙은 민간신앙으로서 굳건히 존재해 왔으며 지금까지도 불교는 한국의 중요한 종교신앙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지명에는 불교의 윤리원칙이나 교리적인 면보다는 절이름(불사)이나 부처님에 대한 신앙을 의미하는 이름이 불교지명의 주류를 이룬다. 그 예로 전국에 널리 흩어져 있는 절골 또는 寺洞으로 알려진 취락은 전국에 수 백을 헤아린다고 한다.²⁸ 또한 “우리나라 5만분지 1 지형도를 보면, 어떤 도엽에서도 절골(절터)[寺洞, 寺里, 寺谷, 寺址, 舊寺]등의 지명이나, 탑골, 탑지[塔谷, 塔洞, 塔里, 塔址]등의 지명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고도 한다.²⁹

이영택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불(佛)자가 들어가는 29개 지명을 예로 들었는데, 불국산, 불당산, 불현리, 대불리, 불수(佛首)산, 불경곡, 불모(佛母)산, 불암산(서울시 도봉구) 등 다양하다.³⁰ 전국의 유명한 산의 산봉우리 이름으로 자주 보이는 금강산의 문수봉, 지리산의 반야봉, 속리산의 관음봉, 오대산의 비로봉도 모두 불교 신앙의 대상인 부처님의 이름이나 보살의 이름을 딴 것이다. 한국지명 총람을 색인하면 전국방방곡곡에 널리 분포하는 불(佛)자나 부처님의 각각 다른 부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지명을 훨씬 더 많이 찾아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외에도 승려에 관계되는 지명에는 원효산, 달마산, 의상대 같이 역사상 유명한 승려의 이름을 붙인 것도 있지만 승방마을 또는 승암산 같은 일반 승려와

²⁸ 이영택, 한국의 지명, 93쪽

²⁹ 이영택, 한국의 지명, 94쪽

³⁰ 이영택, 한국의 지명, 96쪽

관계되는 지명도 상당수 있다고 한다.³¹

이 대부분의 불교 관련 지명은 불교 사원이나 불상 등 신앙에 관계되는 지명이자 자비사상을 비롯한 불교의 윤리관을 나타내는 지명은 찾아 보기 어렵다. 이 점이 불교 지명과 유교지명의 큰 차이점이자 한국인에게 미친 유교와 불교의 특징을 그대로 잘 반영한다고 하겠다. 유교는 사회윤리적인 도덕교육이 중심이고 이러한 면은 지명에도 잘 반영되어 효사상을 비롯하여, 충신, 열녀를 기리고, 인의예지신의 덕목을 나타내는 지명이 허다하다. 유교에서는 문묘나 사당과 같이 성현을 기리고 향교와 같이 유학을 공부하는 학교가 있었으나 불교와 같이 종교적인 신앙의 대상을 안치한 사원이 없는 반면에 불교는 신앙의 대상인 부처님을 모신 절(불당, 사원)이 도처에 있어 종교행위의 중심이 되어왔다. 이러한 면이 지명의 특징에도 잘 나타나 있다. 불교지명에서는 종교 시설인 절이나, 탑 또는 미륵불 등의 신앙의 대상이나 신앙 구조물이 불교지명의 대종을 이루지만 유교지명에서는 유교 사회 윤리의 덕목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지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김순배는 그의 학위 논문에서 구 공주목의 진관구역에 있는 불교지명으로 38개의 지명을 열거하였다.³² 이들 불교지명을 형태별로 내가 분류해 보았더니, 절의 이름이 지명이 된 경우, 예를 든다면 관촉사라는 절이 있으면 관촉동이라고 절의 이름을 따서 붙인 지명이 19개로 제일 많았다. 그리고 특정한 절이나 탑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일반적인 절골을 의미하는 사동(寺洞)이나 대사동(大寺洞, 한절골), 황사(黃寺, 누른절) 또는 탑리(塔里)라는 지명이 8개나 된다. 그래서 사탑에 관련된 지명이 27개로 전체 38개 불교지명의 71%나 된다. 그다음이 불교도들이 신앙의 대상인 미륵, 약사, 관음등 특정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이름을 딴 미륵원, 약사봉, 관음포 등의 지명이나 일반적인 부처님을 의미하는 불암산, 불명산 등을 포함하는 지명이 6개로 그 다음을 이룬다.³³ 그 다음이 독경을 하는 불경의 이름을 딴 이름인 금강리, 반야산 등의 지명이 5개 보인다. 그러나 38개의 지명중, 불교의 특정교리나 사회윤리에 관계되는 지명, 예를 들자면 자비 사상이나, 해탈, 연기, 업보, 등을 의미하는 지명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도덕사가 있던 곳에 붙여진 도덕동(도덕골)이 유일하게 윤리도덕에 관계되는 지명으로 꼽을 수 있는 정도이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경배하며 종교적인 신앙의 수행이 그 종교의 근간이 었기 때문에 불교가 지명에 미친 영향은 주로 신앙수행의 장소인 사탑을 의미 하는 지명에 치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교에서는 종교적인 신앙의 대상이 불교와 같이 뚜렷하지 않았던 반면에 사회 윤리가 근간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유교가 한국지명에 미친 영향은 유교 윤리를 나타내는 지명을 양산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유교와 불교가 한국지명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대조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³¹ 이영택, 한국의 지명, 98쪽

³² 김순배, 한국지명의 문화정치적 변천에 관한 연구, 133-134쪽

³³ 미륵원과 미륵당리(미륵당이)의 경우, 특정 절이름이 지명이 된 경우와 불교신앙의 대상인 부처님, 보살님의 이름이 지명이 된 경우로 중복하여 분류되었다.

4) 무속신앙 지명

서울에는 영등포구에 당산동이 있는데 이는 무속 신앙의 대상인 신위를 당집에 모시던 곳을 의미하며 당산제를 지내던 곳으로 부터 유래된 지명이다. 이러한 당산동은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다. 국토지리원 발행의 지명유래집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지역의 당산동 또는 당산리이란 지명이 실려있다.³⁴

- 1) 서울시 영등포구
- 2) 충청남도 대전시 회덕 이동
- 3)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양산리
- 4)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 5)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 6)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용문리
- 7) 경기도 강화군 하점면
- 8)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이외에 사당동 (서울), 당곡동 (서울 관악구 봉천동; 경북 영천군 화산면; 경북 경산군 진량면; 충북 영동군 영동읍)³⁵ 등 당집을 의미하는 지명은 전국에 많이 있다. 성황당은 토속신앙의 대상인 성황신을 모시고 마을제사, 또는 당산제를 지내던 곳이다. 성황당은 주로 마을어귀나 고개마루 등 사람들이 오가는 길가에 있는데 사람들이 던져 모인 돌 무덤이나 당집이 있는 곳이다. 성황당이란 지명은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데, 지명유래집은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와 경북 예천군 상리면 명봉 등 14군데의 성황당 마을을 열거하고 그 지명의 배경과 유래를 소개하고 있다.³⁶ 또 같은 책에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성황당의 수는 1968년에 조사된 것만도 5,577개가 되는데 조사되지 않은 것 까지 합하면 약 1만개 가량의 성황당이 전국에 있는 셈이라고 추산하고 있다.³⁷

노고산, 또는 마고산 등은 노고할미, 마고할미 등의 도교신앙에서 연유되어 나온 것으로 보이는 산천승배 신앙과 연관된 전통 민속신앙을 반영하는 지명이다. 이들 민속신의 이름을 딴 지명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

이와 같이 전통민속신앙인 무속에 관계되는 지명은 전국에 널리 남아 있는데 이는 민중 속에 옛날부터 내려 오는 토속 무속신앙이 얼마나 깊이 민속문화의 주축이 되어왔는지를 잘 읽을 수 있는 텍스트이다. 무속지명의 특징은 불교지명의 특징과 비슷하게 무속신앙의 대상이나 무속신앙에 관계되는 구조물에 연관된 지명이 대부분이고, 유교지명과 같이 사회윤리를 진작시키는 교육적인 지명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종교관련 한국 지명의 특징은 유교, 불교, 무속 및 풍수 신앙의 신앙체계의 특징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³⁴ 건설부 국립지리원, 지명유래집, 192쪽

³⁵ 건설부 국립지리원, 지명유래집, 191쪽

³⁶ 건설부 국립지리원, 지명유래집, 196.

³⁷ 건설부 국립지리원, 지명유래집, 195.

5. 전통적으로 한국문화에서는 시가지 길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오직 최근래에 길 이름들이 붙여졌다.

여러 고지도에 나타난 서울의 사대문 안에 펼쳐진 시가도를 보면 중요한 시내 도로가 잘 표시되어 있으나 그 도로명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상세한 서울 도성의 지도인 수선전도(首善全圖)에는 지금의 세종로나 종로 등에 해당하는 그 당시 서울(당시의 공식 명칭은 漢城)의 도로망이 잘 표시되어 있으나 길 이름은 하나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 지도에는 궁궐 이름을 비롯하여 가회방, 안국방, 송목동, 옥류동 등 각 지역 이름이 자세히 표시되어 있다. 사실 그 당시 서울 시내 도로는 공식 도로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면을 고려해 볼 때 한국문화에서는 전통적으로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길 이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의 중요한 길, 예를 들면 을지로, 충무로, 율곡로, 퇴계로는 모두 1945년 해방후에 붙여진 이름이다. 1990년대 까지만 해도 내가 기억하기로는 서울의 아주 중요한 도로를 빼고 자동차로 양방향통행 하는 웬만한 도로도 길 이름이 없었다. 특히 새로 택지가 조성되어 시가지가 된 경우에는 도시주거나 상가지역으로 개발된 뒤 십수년이 지나도록 큰 도로에 길 이름이 없어도 별로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아왔다. 그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길 이름으로 어떤 집을 찾기 보다는 그 지역의 주요한 지형지물을 중심으로 하여 길을 찾는 재래 한국의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최근래에야 모든 도로에 길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길 이름 붙이기가 급격히 신장된 것 같은데 이는 한국의 자가용 운전 문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운전자들이 서양에서와 같이 운전을 할 때 지도(종이 판 또는 전자 판)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해졌다. 요즘 서울의 길 이름에는 훌륭한 한국 역사상 인물들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식으로 특정사람 이름을 지명으로 사용하여 그 특정인을 칭송하고 기념하는 전통은 재래한국사회에는 없었다. 그리고 한국도시의 시가지 길 이름도 새롭거니와 그러한 거리를 훌륭한 조상의 이름을 지명으로 하여 장식하는 것도 재래 한국 전통으로 봐서는 새로운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서양문화로 부터 온 것임에 틀림없다.

마무리

현재 한국 행정단위의 공식 지명은 거의 다 한자화된 지명이고 이는 중국문화의 문화식민지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자화 된 지명의 상당수는 중국지명을 그대로 본딴 것이거나 중국문화의 영향이 반영된 것들이며, 토박이 지명을 한자로 번역표기한 것도 상당하다.

토박이 지명은 아직도 살아 있어 실제로 민중사이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주로 비공식 이름으로 밀려 나와 있다. 이 토박이 지명은 주로 그 지역의 자연환경의 특징이나 민족의 전통과 사상이 투영되어 있는 귀중한 문화재이다.

이미 사라져 찾아 보기 힘든 민족의 옛 생활과 정신적 유산이 이러한 지명에 희미하게나마 남아 있는 경우가 (palimpsest of past Korean cultural heritage) 많다. 그래서 지명은 민족의 문화적 유산과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는데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문화재이다. 삼국사기 등에 남아 있는 삼국시대 토박이 지명이 삼국시대 언어문화를 알아 보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좋은 예이다.

서양과 달리 개인을 칭송하고 기념하는 수단으로 그 이름을 지명에 사용한 경우가 한국의 전통문화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지명의 중요한 특징중 하나이다. 전통적으로 한국문화에서는 시가지에 공식 도로명을 붙이지 않았다고 이 논문에서는 밝혔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서양문화의 영향을 받아 길이름이나 다른 지명에 유명인사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새로이 형성된 지명 전통에 현대 한국인은 익숙해 지고 있다.

한국지명에 흔히 나타나는 지명은 한국인의 전통 신앙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유교와 연관되는 지명, 불교와 연관되는 지명, 풍수신앙과 연관되는 지명 그리고 무속신앙과 연관되는 지명이 두드러진다. 유교지명에는 주로 유교윤리관이 반영된 지명이 많은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효사상을 반영하는 지명이다. 불교지명에는 불교윤리를 반영하는 지명이 흔하지 않고, 절이름이나 사탑의 장소를 반영하는 이름, 즉 불교의 종교 경관을 나타내는 이름이 가장 흔하다. 풍수지명은 풍수형국의 이름과 연관된 지명들이 두드러지게 많고, 무속지명은 당집 등 무속신앙의 장소를 나타내는 지명이 많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의 다섯가지 한국 지명의 일반적인 특징을 예비고찰적인 입장에서 제안하고 전체 지명의 체계적인 분석없이 기존 연구와 지명사전의 자료를 참고로 하여 토론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한국지명의 특징 연구는 보다 많은 지명을 체계적인 표본 조사와 분류를 통하여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건설부 국립지리원, 地名由來集 (서울: 건설부 국토지리원, 1987).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慶尙北道 地名 由來總覽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1984).

권상노, 韓國地名沿革考: 地名變遷辭典 (서울: 동국문화사, 1961).

권선정, “풍수 지명과 장소 의미: 충남 금산군을 대상으로”, 문화역사지리, 제 22권 제1호 (2010), 19-32쪽

김부식, 삼국사기 (상) (하), 이병도 역주, (서울: 을유문화사, 1987).

金淳培, 韓國 地名의 文化政治的 變遷에 關한 研究: 舊 公州牧 鎭管 區域을 中心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김순배, “지명의 이데올로기적 기호화: 유교, 불교, 풍수지명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제22권 제 1호 (2010), 33-59쪽

신종원, 삼국유사 새로 읽기(1): 기이편 (서울: 일지사, 2004).

윤홍기, 땅의 마음 (서울: 사이언스 북스, 2011).

이영택, 韓國의 地名: 한국지명의 지리 역사적 고찰 (서울: 태평양, 1986).

천인호, “지명형성의 풍수담론: 봉황형국을 중심으로”, 地名學 제17집 (2011)211-248쪽.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지명의 지리학 (서울: 푸른길, 2008)

Herman, RDK, “The Aloha State: Place names and the anti-conquest of Hawaii,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 89 (1), 1999, p.76-102.

Spencer, Joseph, “Chinese Place names and the Appreciation of Geographic Realities”, *Geographical Review*, vol. 31, No.1 (1941), 79-94.

Wright, Arthur F., “Symbolism and Function: Reflections on Cangan and Other Great Cities”,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24, no. 4 (1965), 667-679.

Hong-key Yoon: "Imposing Chinese Names on Korean Places: An Examination of Chinese Cultural Influence on Korean Place Names, Using the “New Zealand Place Names Pattern” Method of Analysis **Perspectives on Korea**, (Sydney: Wild Peony, 1998), pp. 151 - 163

ABSTRACT: A Preliminary Discourse on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Place Names

**Hong-key Yoon
School of Environment
University of Auckland**

Joseph Spencer carried out the first research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inese place names and published it in the *Geographical Review* in 1941. His paper mainly dealt with the names of provinces and provincial capitals in China. However, to date, there are no academic journal articles in the USA or Britain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place names.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place names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following aspects:

1. Sino-Korean names: Official Korean place names (e.g., the official names of administrative regions and cities) are Hanja (Sino-Korean) in origin. Sino-Korean place names often represent that these place names were directly imported from China or were adapted from Chinese names.
2. Traditionally, no places were named after great personalities: Traditionally no Korean place names of cities or administrative regions were named after national heroes or kings as a form of honouring and respecting them. This tradition must be from the Korean custom of avoiding the direct reference to one's ancestors or great personalities by their first name. The place names such Sejong City (after King Sejong) and Chungmuro Avenue (after Chungmugong Yi Sunshin) were named as such after 1945 as a form of honouring these national heroes. However, the act and mentality of naming places after great personalities is a Western import.
3. The majority of indigenous Korean place names represent local landmarks or landscape characteristics.
4. Korean place names are often associated with major religious beliefs. For instance, place names such as Wausan (Mountain of a reclining cow) and Yongsusan (Mountain of a dragon head) indicated people's geomantic (fengshui) beliefs, while Puramsan (Mountain of a Buddha Head) was associated with Buddhism, and Hyojadong (Village of a filial son) represents society's Confucian ethos.
5. Traditionally city streets in Korea were not named. Only after the introduction of Western culture to Korea were streets named.
6. Generally, indigenous Korean place names are no longer considered the official place name. Instead, they are regarded as the unofficial vernacular name. In their place, Sino-Korean names have been installed as the official place name since the Shilla Period in 757 AD. Among the official administrative names of Korea, only Seoul and Incheon

County (in North Cholla Province) are clearly recognisable as indigenous Korean place names. Almost all other administrative names listed in the 1992 List of Administrative Regions, are Hanja-mal or Sino-Korean. However, many indigenous Korean names are still in used as the vernacular name but are gradually becoming overlooked amongst the younger generations and are falling out of use.

Among all nation-states in the world, Korea might be the only country who treat their indigenous place names in this manner by treating indigenous names as the unofficial and vernacular name, while adopting imported foreign origin words (Sino-Korean words in this case) as the official name.

Abstract: 한국지명의 문화적 특징에 대한 예비 토론

A Preliminary Discourse on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Place Names

윤홍기(오클랜드 대학교, 환경학부)

Hong-key Yoon (School of Environment, University of Auckland)

중국지명의 특징은 중요도시와 지방 행정단위를 중심으로 서양에 그 문화적 특징이 이미 1941년에 Joseph Specner 에 의하여 소개되었다. 그러나 한국지명의 문화적 특징에 대해서 아직까지 종합하여 토론된 논문으로 서양에 소개된 것이 없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한국지명의 문화적 특징을 개관하여 보고자 한다.

1. 현재 한국의 공식 지명은 한자로 된 지명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가 중국의 지명을 그대로 빌린 느낌이 강한 지명이다.
2. 전통적으로 한국지명에는 유명한 사람의 이름 (제왕이나 영웅들의 이름)을 지명에 붙여서 기념하는 경우가 없었다. 조상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전통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러나 세종시 또는 충무로와 같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의 이름을 존경하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지명에 붙이는 경향은 현대에 들어서 나타났고, 이러한 멘탈리티는 서양문화에서 들어온 것이다.
3. 전통적으로 한국의 지명은 지형지물, 경관의 특징을 나타내는 이름들이 많다.
4. 한국 지명에는 한국의 종교신앙을 표현하는 이름들이 흔하다. 그예로 와우산, 용수산과 같이 풍수신앙을 표현하는 지명과, 불암산 같이 불교신앙을 표현하는 이름 및, 효자동처럼 유교 가치를 반영하는 지명을 들 수 있다.
5. 전통적으로 한국문화에서는 시가지 길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오직 최근래에 길이름들이 붙여졌다.
6. 한국 토박이 말 지명은 대체로 공식지명에서 밀려나 비공식 토속지명으로 전락하였다. 서울시와 임실군과 같은 지명은 순수 우리말 토박이 이름이 살아 남은 경우이다. 그러나 1992년도에 집계된 한국의 다른 모든 행정단위 이름은 한자 지명이다. 토박이 이름은 시골 자연 마을 이름이나 지방 곳곳의 땅이름으로 민중속에서 아직도 살아 있지만 공식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사멸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토박이 지명이 퇴출되고 외래어에서 유래된 이름 (한자 지명)이 공식지위를 누리는 경우를 다른 나라 문화에서는 찾아 보기 힘들다.

본논문은 영문으로 발표할 예정이다.